

나의 수행법

김홍근 (下)

나는 육조사 선원에서 실참을 하면서 두어 번의 선체험을 했다. 첫 번째 선체험은 이렇게 왔다. 저녁참선 후 선원장스님이 소참 법문을 해주시는데, 누군가가 스님께 체험을 하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고 물었다. 스님은 '물을 담은 통나무의 밑창이 꼭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나는 내게서 나를 확 잡아 뺐다. 오른손에는 나의 곱질이 들려졌고, 앞에는 고요하면서도 밝은 무언가가 보였다.



리고 보는 자의 셋이 모두 부장된 그 막막한 공간에 무엇인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셋 모두 자신이 아니라라는 것을 아는 자가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흘러나간 뒤 남아있는 '바닥'의 발견. 나는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를 찾은 것이다. 나는 속이 시원해졌다.

이후 나는 인터넷에 '참선일기'를 연재했는데, 스님께서 일기를 읽고 이런 지적을 해주셨다. '거사님이 앉아서 자성을 기다린다'고 일기에 썼는데, 이미 물속에 있는 사람이 물을 다시 기

이후 나는 생활 중에 부닥치는 경계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공부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의 생생한 자성 대신에 자꾸 지난 선체험 때의 느낌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두 번째 체험 역시 하나

첫번째 선체험 후 그 느낌에 계속 집착 스님과 문답 통해 '중도' 찾고 생활참선

다려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누구며, 기다리는 자성은 누구에게 속한 자성인가?

의 마장(魔障)이 되어 내 마음을 과거에 얽매게 했던 것이다.

지적을 받고 돌아보니, 나는 이전의 선체험을 되풀이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됐다. 불성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성을 기다리는 모습을 범했던 것이다. 나는 기왕 지난 선체험까지 돌아보았고, 거기서 치명적인 잘못을 발견했다. 내가 나를 잡아 뺐을 때, 한 손으로는 나의 곱제기를 들고 눈으로는 알맹이를 보았는데, 미처 그것들을 '보는 자'가 있는 줄은 자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스님께 여쭙고, 스님은 "자성은 양변을 여의었다."고 대답해 주셨다. 그 당시 '보는 자'가 남아있으므로써, 나는 '보이는 것'과 '보는 자'가 있는 양변에 떨어졌던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나는 나의 체험을 완전히 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참선에서는, '나의 수행법'은 없고, 단지 불초가 확립하여 내려오는 '바른 수행법'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먼저 그동안 허공중에서 회두를 들어온 것을 반성하고, 회두가 자리 잡을 땅을 먼저 다졌다. 나는 '일체 중생 안에는 깨닫는 성품이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안에 있는 깨닫는 성품, 즉 불성을 관(觀)하여 감지하도록 노력했다.

이제 나는 생활 중에 늘 깨어서 '보고 듣고 자각하고 아는 것(見聞覺知)을 대하는 자'를 감지하려고 노력한다. 참선은 나를 바꿔가고 있고, 나는 다른 의식이 없어졌다. 나는 '깨닫는' 참선보다 '사람이 변화되는' 참선이 우선이라고 믿고 싶다. 나는 참선에 매달리는 생활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참선이 되는 공부길을 걷고 있다.<끝>

■ 성천문화재단 연구실장

진각종 탐주심인당 7일 진언수행 현장

옴마니반메훬~ 옴마니반메훬~

'참부처는 나' 확인하는 불사



'내가 범신불'임을 확인하는 진언수행. 보살들의 수행열기가 뜨겁다.

1월 10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탐주심인당(주교 호암) 밀교종단 진각종 총본산인 총인원 한 가운데에 자리 잡은 심인당(心印堂·진각종의 법당)에 300여 신교도(신도)들이 가부좌를 틀고, '진언'을 염송(念誦)하고 있다.

'옴마니반메훬, 옴마니반메훬~'. 육자진언 정근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매년 1월 첫째 주를 '새해 대서원 불공' 기간으로 정하고 7일 정전에 들어간 진언행자들. 옹양정전의 열기로 심인당이 후끈 달아오른다.

정근에 앞서 신교도들은 '교리참회'를 합송했다. '내가 부처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늘 큰 자비심을 품고 육바라미를 실천해 성불하겠다'는 맹서를 자신에게 했다. 또 인연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해탈·제도되길 기원하는 '강도(講度) 발원'도 올렸다.

참회와 발원이 끝나자 호암 정사진각종의 남자 성직자의 설법이 이어진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내가 범신불'임을 확인했습니다. 몸(身)으로 금강자비(金剛自比)나 불수인을 결인하고, 입으로는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훬를 염송하고, 마음으로는 범신불을 관하는 삼밀관행을 했습니다. 스스로 범신불

이 돼 본 것입니다." 그럼, 삼밀관행(三密觀行)의 요체는 어떤 것일까. 또 어떻게 육자진언을 염송해야 하고, 육자진언의 뜻은 무엇일까? 호암 정사의 설명이 계속된다.

"입으로만 진언을 외는 일반적인 진언수행과 다릅니다. 진언행자가 직접 범신불의 말과 몸,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바로 삼밀관행 수행의 핵심입니다. 즉 나의 삼업(三業)이 범신불

정근前 인연있는 모든 사람들의 해탈 기원 손 모아 육자진언 외며 범신불 관하기

의 그것임을 알아차리는 행법이 진언수행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삼밀관행은 육자관(六字觀)으로 구체적인 진언수행법이 된다. 육자관은 '옴마니반메훬'의 여섯 글자를 수행자의 신체와 연결시키는 관법으로, 내 몸 구석구석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보는 진언수행법이다. 그래서 육자진언을 한 자 한 자 염송할 때에는 자신의 몸



1월10일부터 7일간 진언옹양정전에 들어간 진각종 탐주심인당의 진언행자들. 사진=고영배 기자

이 범신인 다섯 부처님과 금강보살이라는 것을 체득해야 한다. '옴'자를 외 때는 낱숨에 맞춰 배꼽에 포자(布子·씨를 뿌리듯 심는다는 뜻)된 비로자나불을 관하고, '훬'자는 인후에 포자된 금강보살을 보면서 들숨으로 호흡을 거둔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자는 각자의 근기에 맞춰 일정 시간을 정하고 반복한다. 그러면서 본래 자신이 자성불(自性佛)임을 깨달아 들어간다.

서 무량한 자비를 상징하며 훬(Hum)은 우주의 개별적 존재 속에 담겨 있는 소리로서 우주 소리(Om)를 통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진각종 교리를 집약한 <진각교전(眞覺敎典)>에서는 육자진언이 부처와 모든 보살, 중생들의 본심(本心)이라고 설한다. 또 육자진언을 자신 마음에 새겨있는 '범심인(佛心印)'으로 설명한다. 이는 삼밀관행으로써 자신(自心)에 항상 범심인을 아로새겨 자신이 '자성법신(自性法身)'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탐주심인당 주교 시무(진각종의 예비 정사)는 '본심진언 옴마니반메훬를 오나가나 항상 외고 하루 열 번 이상 참회를 하면, 탐진치 삼독심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한다'며 "진언 염송은 내 마음이 곧 참부처의 마음이란 것을 깨닫게 하는 수행법"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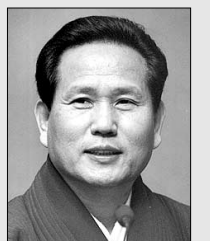
진각종 서울교구청인 탐주심인당은 현재 3천여 신교도들이 신도회 산하에 합창단 다도회 봉사회 등을 두고 다양한 신행을 펼치고 있다.

정기 불사(법회)는 매주 수·일요일 오전 10~12시 및 오후 6시 30분~7시 30분이다. (02)914-0840~1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인터뷰

탐주심인당 주교 호암 정사



탐주심인당 주교 호암 정사

"진언은 이 몸 그대로 부처되는 수행"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진언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언은 이 몸 그대로 곧바로 부처가 된다는 '즉신성불(卽身成佛)'의 구체적인 수행법이 되는 거지요."

탐주심인당 주교 호암 정사는 중생의 삼업이 곧 범신불의 삼밀임을 알게 하는 수행법이 진언이라고 말한다. 즉 부처의 삼업(三業) 즉 몸과 입, 뜻으로 짓는 행위는 '삼밀(三密)'이라 하는데, 부처와 중생의 본성이 하나로 결합하는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손으로 인(印)을 맺고(身密), 입으로 진언을 외며(口

密), 생각으로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임을 관(密)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암 정사는 특히 진리로 있는 범신불이 '참부처'라고 강조한다. 범신으로서의 자성불은 석가모니 부처가 연기법을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생멸 없이 '그대로' 우주법계에 있어왔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방편으로 드러낸 형상이 집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러 호암 정사는 "진언수행을 통해 '내가 자성법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 밖에 부처를 찾거나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불·교·태·고·종·과·합·계·하·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4학기) / 연구과정 (2학기) 신입생 모집 (추가)

2005.1.10~1.31

◆ 개설학과

학과	세부전공	모집인원
문인서화학과 (文人書畵學科)	서법예술전공 동방회화전공	00명
불교문예학과 (佛敎文藝學科)	불교음악전공 불교미술전공	
민속문화학과 (民俗文化學科)	역경예측전공 풍수환경전공 민속연희전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지원자격
- 석사과정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연구과정 : 일반 성인 남·여 / 학력·연령 제한 없음

문화교육원 전문과정 신입생 모집

과정	교육과정	세부과정	담당교수
불교 문화 예	불교음악 실기	사찰기초의식	김구해
		범패실기 (홀소리)	심상현
		불교무용 (나비춤)	김법현
	불교미술 실기	불교조각	이상배
		불화기초실기	원미희
		불교한문강독	심재동
역경 명리	불교경전 강의	대승경전 연구	주명철
		불교기초교리	심상현
		주역 연구	신성수
	역경학 강의	역경학 강의	박영창
		역경학 강의	박영창
		역경학 강의	박영창
민속 문화	기문둔갑학 강의	기문둔갑 연구	이승진
		기문둔갑 연구	이승진
		기문둔갑 연구	이승진
	민속연희 실기	민속극·음악·무용	이정섭
		무속·제의·민속	박상만
		민속극·음악·무용	이정섭
가요 실기	가요 연구	임부희	
	가요 연구	임부희	
	가요 연구	임부희	
자연치유학 강의	대체의학 연구	이승덕	
	한방과 사주학	한승철	
	비전환방문 연구	윤영배	

◆ 접수 및 등록기간 2005.1.10~2.25

◆ 수강대상
- 일반 성인 남·여 / 학력·연령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사진(3cm×4cm)2매

◆ 접수방법
- 본 교육원 교학과에 직접 방문
→ 원서 작성 → 해당 등록금과 함께 접수
- 해당 등록금 온라인 입금
→ 본 교육원에 전화로 입금 확인 → 원서는 개강 시 작성

개·교·기·념

공개강좌 특별과정 모집

◆ 모집기간 : 2005.01.10 부터 선착순 마감

◆ 수강대상 : 일반 성인 남·여 / 학력·연령 제한 없음

◆ 특 전 : 총장명의로의 수료증 수여

◆ 개 강 : 3월 첫주

주택풍수감정사 / 천명사주감정사

교재 최초공개! 저자직강 민속문화학과 노병한 박사

◆ 모집정원 : 각 과정별 30명

◆ 수 강 료 : 각 과정 당 100만원 (2과정 동시 수강 시 25만원 할인) * 교재 별도 구입

◆ 교육기간 : 18주

◆ 특 전 : 대학교수자격증 수여운영규정에 의한 총장명의로의 자격증 수여

◆ 교 재 : 음양오행사유체계론, 거림천명사주학, 거림기택풍수학

시간	기초 5주 (03.12~04.09)	실전 13주 (04.11~07.09)
과정	과목명 강의시간	과목명 강의시간
주택풍수	음양오행학 (토) 14:00~18:00	주택풍수학 (토) 14:00~17:00
	천명사주 (토) 14:00~18:00	천명사주학 (금) 19:00~22:00

민화진채 실기

명실상부한 전문인 양성! 서공임 교수

◆ 모집정원 : 20명

◆ 수 강 료 : 100만원

◆ 교육기간 : 16주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00~오후 16:00 (6시간)

침구·교정 과정

중국 현지 침술 연수! 이명희 교수

◆ 모집정원 : 40명

◆ 수 강 료 : 60만원

◆ 교육기간 : 16주(2년 과정)

◆ 특 전 : 년 1회, 중국 현지 침술 연수 30일(연수비 별도)

새로운 동방문화 예술의 길잡이 **東方大學院大學校**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dongbang.ac.kr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02-745-2141